

## 海外情報

### ○ 태국 TCC, 작년도 비료 판매량

日商岩井, 센츄럴초자와 태국 기업의 합작 비료회사인 타이·센츄럴·케미컬(TCC)의 2000년도 비료 판매량은 100만톤을 초과하여 거의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계획에서는 120만톤 정도의 목표를 세웠으나 잠정 집계에서 이에 미달된 결과로 끝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집계되는 확정치에서도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TCC의 비료 판매는 자사의 복비를 중심으로 해외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과 합하여 2000년의 100만톤 초과 판매한 경우 자사 제품 7할과 나머지 3할은 해외제품이라고 한다. 해외제품은 요소, 황산암모늄, DAP, 가리 등으로 많은 출처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에 못미친 것은 그 나라의 일기 사정 즉 비가 많이 오고, 수해를 입는 등 순조롭지 못한 날씨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판매가격 인상으로 수요자의 매기가 둔화된 것에 더하여 같은 업종의 타 회사인 국영비료회사(NFC)나 타이비료회사(TFC)와의 경합도 심했다는 것 등이 요인이 된 것 같다.

2000년의 판매량은 2월말쯤에 확정되겠지만 지금으로는 거의 전년과 같은 량으로써 TCC의 금년도 판매 계획량은 전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잡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CC의 복비 생산능력은 120만톤으로 이의 판매를 과제로 삼고 있으며 또한 같은 업종인 타 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9일 >

### ○ 일본, 카프로락탐 감산 확대로 유안 수급 곤란

관련 메이커들의 유안 수출문제는 카프로락탐의 감산에서 시작, 자금흐름이 어려워지고 거래에서 생각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가는 것 같다.

일부 메이커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도 계약 잔량이 남아 있어 그 출하에 쫓기 어 수급면에서 민간 무역상의 유안 수출이 거의 보류되다 시피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 상황은 3월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 상사들의 유안 수출 정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카프로락탐의 감산은 수출 부진 등에 의하여 관련 메이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 생산 감량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결과 유안의 생산도 평행적으로 멀어지고 국내 수요를 제외한 수출도 그 만큼 억제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미 계약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출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 무역에 의한 유안 수출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카프로락탐 감산에 따른 유안 생산 감량은 내수가 감소하면 수출용이 그 만큼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이 균형이 어떻게 유지될지 향후 1개월 동안의 동향으로 그 모습이 명확해지리라고 본다.

다량 계약인 필리핀에 대한 유안 출하가 끝나면 메이커의 물량에 여유가 생기고 일부 상사들은 그 시기에가서 수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14일 >

#### ○ 미국, 가스가격 하락으로 휴업 메이커 생산 재개

미국이 적극적으로 마련했던 암모니아와 요소의 해외 수입상품은 최근 본래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 배경에는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그 동안 휴업했던 메이커들이 생산을 재개하여 미국내 제품으로 보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초 미국비료협회(TFI) 동계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한 일본의 일부 관계자의 견해를 일부 소개한 내용을 보면 암모니아는 여전히 고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을 중단했던 공장의 재 가동에 힘입어 수입품은 국내 상품으로 충당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특수 구입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전체 수입품 매입을 감퇴 경향을 바꿔고 있어 이 때문에 암모니아는 미국 Gulf도 시세가 C&F 250~270

달러의 영역으로 추이 되고 있으며, Tampa에서 넘기는 시세도 같은 230달러 수준에서 그 이상의 상승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MMBTU 10달러선으로 기록적인 고가를 기록 했으나 그 후 하락 추세로 오르내리면서 6달러대에서 5달러정도 하락하였고 채산상 이유로 중단했던 암모ニア 생산이 서서히 재개 방향으로 돌아섰다.

암모니아의 생산 차단과 더불어 요소의 생산 중지도 차츰 재가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 결과 지금까지의 암모니아, 요소의 해외상품 대체 쇄도는 시비계절과의 관계상 일단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암모니아, 요소의 국제 시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한다.

요소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신규공장의 생산 가동으로 인한 공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수급·시황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TFI측의 북쪽 중남미 지역에 관한 견해이며, 당연히 국제 수급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15일 >

### ○ 90년 이후의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관련업계 측이 해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의 추이에 따르면 1990년에 MMBTU 당 2달러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1996년 단계에서는 2달러대로 오르고 그 후 2000년 2월경까지 비교적 안정된 가격이었다.

그러나 2000년 5월 이후에는 3달러를 돌파하여 4달러대로 되고 다시 2000년 9월에는 5달러대로 급등하는 행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10달러의 기록적인 신고가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부터 몇 년간은 2달러 이하의 저가 안정된 가격이었는데 2000년 중반부터 급  
피치로 올라 같은 해 12월에는 MMBTU 10달러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의 10달러 후에는 점차 가격하락이 되어 9달러, 8달러, 6달러로 하락하고 최근에는 5달러대 그리고 5달러 수준으로 저하되어 이 수준을 경계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10년사이에 크게 변동하여 저 수준에서 대폭적으로 오른

##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높이 오른 변동의 결과, 미국의 비료메이커는 원료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암모니아 공장에서는 생산 중단이 계속되고 이는 다시 요소의 생산 중단으로까지 파급되었다.

이 결과 미국에서는 수급면에서 기존의 암모니아나 요소의 구입에 덧붙여 부족분을 커버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 제품의 도입으로 이들 제품의 국제시황은 급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높게 오르는 것은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적 수요증가, 수급의 불균형이 주 요인되었는데 시비 수요계절도 점차적으로 절정기를 넘어가는 중이므로 가격이 점차 하락하였고 최근 메이커의 암모니아 생산도 다시 생산재개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격은 1990년 초기의 저위 안정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고가이며, 암모니아 시황 등이 시세 하락할 기색이라고는 하지만 그 되돌아 올 파급은 여전히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19일 >

## ○ 요소 국제 시황(1)

요소의 국제시황이 일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여 하강하고 있는 중에 흑해선적과 중동 제품 등은 딥보 상태로 소강 상태에 있는 듯 하다. 관련업계측에 의하면 그 이면에는 중남미의 수요측이 대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계절에 따른 매기 등이 있다고 한다.

요소 시황에서는 러시아 등 흑해 선적이 FOB 110~120달러 수준에서 FOB 110달러 전후로 하락하고 여기에 다시 하락하여 FOB 1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인가가 초점이었는데 관련자에 따르면 흑해 선적은 요즘 약간 회복 기운으로 FOB 104~106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남미의 바이어가 매수 대기로부터 참지 못하고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요인으로 바로 지금 FOB 110달러대로 복귀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인 것 같다.

이 시황으로 중동 제품도 약세 경향이었는데, 중동 제품은 현재 3월까지는 매진된 상태로

##

서둘러 팔아 치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세하락의 정세가 아닌 것 같고 이 경우에도 동남아시아 등이 제철에 들어섬에 따라 매입 대기로부터 구매로 바뀌면 가격적으로는 잠시 소강의 안정에서 상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 제품도 동남아가 제철에 들어가면 가격은 상향의 안정화로 갈 공산도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요소시황은 미국의 수요가 한바퀴 도는 것으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뀐 것도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려 전체로서는 일종의 축제 국면에 있다고 해서 바이어측이 매수대기에서 매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회복 상승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일시적인 상승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소강의 안정으로부터 다시 시세하락으로 향할 것인지가 당면한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23일 >

## ○ 요소 국제 시황(2)

관련업계측에 의하면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요소 시황의 상승 기미가 농후해졌는데 이 배경에는 구정이 끝난 직후 구매에 관망상태를 보이고 있던 수입국 베트남이 수요 측면에서 매수 기운으로 기울어 졌다고 한다. 베트남이 매수에 들어가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시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요소의 국제가격은 미국의 가스 매출액, 메이커의 채산성 하락에 의한 생산중지 때문에 러시아, 중동,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제품이 미국으로의 투입이 쇄도하여 공급이 달리게 되어 프릴과 그래뉼 제품 가격 모두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황은 상승 국면을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후 하락으로 돌아서서 흑해 선적인 러시아 제품 등은 FOB 100달러대로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림세의 하락 시황이 이번에는 다시 상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 이유로는 베트남의 바이어들이 구정이 끝난 직후에 지켜보고 있던 요소의 매수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움직이기 시작할 징조를 보이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본격화되면 시황 상승은 또 반복된다 고 하여 내외업계는 시황동향을 주목하게 된다. 아주 가까운 인도네시아의 매진으로 제품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udy, please contact Dr. Michael J. Hwang at (310) 206-6500 or via email at [mhwang@ucla.edu](mailto:mhwang@ucla.edu).

이 없을 경우 중동 제품 등의 베트남 수출이 초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중동 제품에 끌나기 않고 중국 제품도 공급여력이 생기면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만큼 움직이게 될 터이고 그럴 경우에는 요소 시세의 상승 기운을 식혀 줄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제품도 국내용 가격 등의 동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2일 >

○ 미국 DAP, 가격 상승 브레이크로 안정 상태

미국의 DAP 수출 시황은 회복 후 안정상태가 이어지고 소위 축제국면에 있는 듯 하다. 이는 관련업계측이 말한 것으로 소위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의 메이커가 수급시황 대책 때 단행했던 대폭적인 감산 조정 결과 DAP 가격은 저가 형세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FOB 베이스로 20달러 또는 그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는 이 회복 상승이 정지하는 느낌을 주었다.

이 상황은 최근에도 변함 없이 상하 변동이 없는 바닥든든한 상황을 유지하며 평온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뭐라 말 할 수 없겠지만 관련업체에 의하면 메이커의 생산조정 결과 조업률은 50%인 반으로 떨어지고 재고도 줄었으며 메이커는 현재의 매진으로 공급은 시세가 상승기류이므로 해외에서 모두가 사려들면 또 단번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DAP 수출가격이 최근의 상승 안정세로부터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인도와 호주의 신규 공급세력 또는 중국, 인도 등 해외 수입국의 매입 동향에도 좌우되는 만큼 시황전개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7일 >

#### ○ 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 신규 요소 공급

요소의 국제 시황이 항상 고저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약세의 하강 기미로부터 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공급 압력이 가해져서 수급은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의 구조로 되어 시황이 상승으로 오르는 강세의 장으로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련업계측은 분석하고 있다.

신규 공장이 완성되어 조업에 들어간 아르헨티나의 년산 110만톤 규모와 베네수엘라의 140만톤 규모의 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연간 합계 250만톤이 새로이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신규 조업에서는 양적인 면에서 공급 개시가 되면 노후화한 기존 설비가 일시 가동중지나 또는 폐기되지 않는 이상 과잉 공급의 구도가 분명하다고 경고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아르헨티나의 신규 메이커의 제품이 오세아니아 등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춘비 시비용으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타 시장으로의 공급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일부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 결과 요소의 국제시황은 계절적, 지역의 수요변화 등에 따르기는 하나 상승요인은 업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의 요소 국제시황은 베트남이 매수를 시작하고 약세로의 브레이크가 걸려 다시 상승 기운이 되면서도 이같은 구조적인면에서 보면 가격 상승은 문자 그대로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요소는 그래뉼 상품으로 수요는 시장에 따라 다른 면이 있는 것도 확실해서 이점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3월 8일 >

♣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도 초라한 내 집만한 곳은 없다.

< 채인 >